

東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

<6月號에서 계속>

宋代 新儒學 思想

중국의 역사에서 唐의 말기에서 宋(960~1279)에 걸친 시기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일어난 시대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唐代까지의 그것이 貴族主義였다면 宋代의 그것은 이미 官僚主義였다고 할 수 있다. 학문의 보급과 科擧制度의 정착으로 사회는 보다 평등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商業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평가되는 그런 시대였다.

唐 멸망후 반 세기 동안 계속된 五代의 혼란기를 통일한 趙匡胤의 宋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아 北京일대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남쪽의 杭州를 서울로 하게된다. 역사는 이 두 기간을 北宋(960~1127)과 南宋(1127~1279)으로 나눠 부른다.

宋은 군사적으로는 허약한 듯 보였으나 文化的으로는 아주 뚜렷한 중국사의 르네상스였다고 평가된다. 이런 문화적 성취는 바로 이 시대에 크게 발전한 新儒學을 예로 들어도 분명하다.

周敦頤(1012~1073)에서 張載·邵雍·程顥·程頤를 거쳐 朱熹(1130~1200)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新儒學은 새시대의 지배적 사상체제가 되었다. 朱子學·性理學·宋學·程朱學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새로운 유교는 그 나름의 우주관이나 자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科學思想史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점유한다. 또한 宋代의 상업발달과 연결된 역사적 사실로는 이 시대에 특히 크게 발달한 數學과 그밖의 여러가지 제조기술등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시기 동안 비단이 더욱 정교하게 짜여졌음을 물론 목화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칠기와 도자기 등의 기술도 크게 발달을 한 것 같다. 좀더 생산성이 높은 쌀의 품종이 보급되었는가 하면 주판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화학 제조기술도 진일보했고 나침반은 적어도 1119년부터 항해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唐대에 이미 시작된 인쇄술은 宋代를 거쳐 더욱 크게 발달했고, 이렇게 나온 수 많은 책들이 문예부흥에 이바지했음은 물론이다.

有機體的인 自然觀 確立

흔히 朱子라고만 불리우는 宋熹(1130~1200)는 朱子學 또는 新儒學의 대표적 학자였다. 그러나 그가 宋代의 새로운 사상을 종합하여 거창한 체계로 대성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선배학자들이 道敎와 佛敎등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생각들을 전개해 왔다. 그러기에 신유학은 道敎가 가지고 있던 自然觀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佛敎의 강점인 형이상학적 안목을 흡수하고 있다.

宋代의 신유학은 보통 唐末의 유학자 韓愈(768~824)에게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는 지나치게 미신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唐末의 불교 또는 도교의 경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유교적 세계관의 부흥을 외치고 나섰던 것이다. 그것은 유교적 휴머니즘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교적인 물질관에 비해 본질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때로는 유물론적이기까지 한 그런 생각의 시작이었다.

신유학의 科學思想 또는 自然觀으로 중요한 경향은 “太極”“氣”“格物”등의 몇 가지 기본적

66

宋代에는 철기와 도자기등의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
또 주판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火藥製造기술도 진일보 하였고
나침반은 1119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唐代에 이미 시작된 印刷術은 宋代를 거쳐 더욱 발달했고,
이 때 나온 수많은 책들이
문예부흥에 크게 이바지 했다.

99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우선 太極의 중요성은 신유학의 가장 초기의 대학자인 周敦頤(1070~1073)에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太極圖說>이란 책을 써서 “無極이면서 그것이 곧 太極이다”(無極而太極)라는 유명한 표현으로 그의 주장을 시작했다. 그는 우주만물의 근원을 太極이라 부르고 그것이 움직이고 정지하는 데 따라 陰陽이 생기며 그로부터 만물은 비롯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여기 그가 중요시하는 太極이란 말은 그가 처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써오던 표현으로 <周易>에 나오는 말이다. 또 無極이란 말도 老子的 <道德經>에 이미 나타난다. 그러나 周敦頤가 강조한 太極은 점차 董仲舒가 漢代의 유학에 끌어들이던 바 있던 人格神으로서의 天을 대체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漢代의 유교는 우주의 主宰者로서 天을 인정하여 일종의 有神論的인 우주관을 갖고있었던 셈이다. 이때 ‘天’대신 太極을 도입함으로써 신유학은 오히려 無神論的인 입장을 향하고 있었다.

太極은 ‘理中之理’라고도 불리우고 天은 당연히 理일 따름이라고 신유학자들은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太極의 도입은 그 전까지의 유교가 받아들여왔던 災異說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던 말인가? 漢代의 유학에서는 그 전까지의 음양오행설의 이론등을 받아들여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체의 이상한 현상은 이 세상의 일들이 잘못되는 데에서 생긴다는 災異說을 인정하고 있었다. 자연속의 일식, 월식, 한발, 홍수, 지진등 모든 災異는 帝王이

天命을 받고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할 때 天이 내리는 처벌 또는 징계라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天은 太極에 불과한 우주의 근본원리적인 理中之理일 뿐이라면 그것이 의지가 없는 데 어찌 이 세상의 잘잘못에 대해 상주고 벌줄 수가 있겠는가?

얼핏 보기에 太極說의 등장은 災異說의 근본을 뒤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학은 災異說을 버리지 않았다. 예를 들면 朱熹는 일식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당시의 天文學은 일식 쯤은 충분히 예보하고 관측하고 있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帝王이 정치를 잘 하면 예정된 일식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신유학은 인간세상의 일을 감시하다가 그에 따라 상과 벌을 주는 하느님(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인간의 일은 自然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有機體的 自然觀을 버리지는 않은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한 덩어리로 연관되어있다는 이런 태도의 밑바닥을 흐르는 또 하나의 사상이 바로 인간과 자연은 똑 같은 理와 氣로 되어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사람에게 따라 또는 사물에 따라 거기에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理가 있으며 모든 인간과 사물은 이 주어진 理에 따라 氣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그래서 흔히 신유학에서 강조하는 理는 서양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From에 해당하고, 氣는 아리스토텔레스의 Matter에 상응한다는 설명도 있다. <계속>